



소셜커머스 뒤흔든 10만원대 국산 TV

작년 8월 소셜커머스 위메프에 '반값 TV'가 올라왔다. 32인치 LED TV가 10만원대 중반에 불과했다. 중국산 저가 TV가 아니었다. 씨마디지텍이 국내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이었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끝판왕'으로 불렸다. 입소문을 타고 한 달 만에 5000여대가 팔렸다. 쿠팡과 티켓몬스터 등에서도 잇달아 '대박'을 냈다. 김현석 씨마디지텍 대표는 "작년에만 180억원 어치를 판매했다"고 말했다.

◆100% 국내 생산 TV
씨마디지텍 LED TV는 100% 국내 생산품이다. 이 회사는 경기 파주시 공장에서 TV를 만든다. 패널은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주로 쓴다. 다른 부품도 대부분 국내에서 조달한다. 삼성전자가 LG전자 등 대기업 TV보다 성능이 크게 뒤지지 않는 이유다. 김 대표는 "영상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드와 솔루션을 자체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가 부품을 사서 조립한 중국산 TV와는 다르다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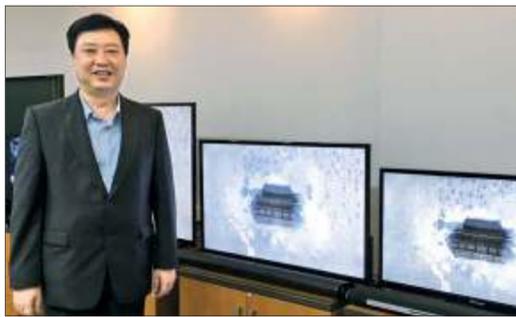
연결 포트를 많이 둔 것도 특징이다. 노트북 게임기 흡사터가

메라 등을 연결하는 고성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HDMI) 포트만 세 개다. 모바일 고화질 링크(MHL) 기능이 있어 스마트폰 화면을 TV로 볼 수도 있다. 1인 가구와 20~30대 청년 소비자 취향을 고려했다.

삼성 LG 부품으로 국내생산 한 달만에 5000대 판매 대박 2000년 창업-美 ESPN 공급 블루투스 스피커도 개발 중

사후관리도 대기업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전문수리업체와 손잡고 제품을 포함해 전국 180여곳에서 서비스센터를 운영 중이다. 콜센터에선 24시간 고장을 접수한다. 1년간 무상 수리도 해준다.

◆美 ESPN에 비디오월 공급 김 대표는 2000년 씨마디지텍을 창업했다. LCD(액정표시장치), PDP(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 등 평판 디스플레이 시장이 급격히 커진 시기다. 한때 연매출이 400억~500억원에 달했다. 2008년



김현석 씨마디지텍 대표가 자사 LED TV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안재광 기자

금융위기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중국에서 저가 TV가 쏟아져 들어온 탓이었다. 국내 수백여개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다. 가격으로는 경쟁이 안 됐다.

김 대표는 연관 제품으로 눈을 돌렸다. 여러 개 LED TV를 이어 붙여 한 화면처럼 움직이는 비디오월, 화면을 질펀처럼 쓰는 전자철판 등이었다. 수출하기 위해 1년에 20여곳씩 전시회를 찾았다. 성과가 있었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 비디오월이 팔려 나갔다. 관공서, 기업 등에서 쓰기 시작하더니 방

송국에까지 들어갔다. 미국 스포츠전문채널 ESPN, 캐나다 로이터통신 등이 씨마디지텍 비디오월을 스튜디오에서 썼다. 중국의 한 광산 상황실엔 60인치 LED TV 100개를 연결한 비디오월을 남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고은빛-초콜릿 크레파스 (043)232-7795 △알에프-윈도우메이트 유리창 청소로봇 (053)985-1282 △씨마디지텍-LED TV (031)942-3358 △레디스-초소형 초경량 소형형 100W LED 산업등 (042)671-3716

국산 LPG용기, 日시장 뚫었다

가스탱크코리아 개발 JX에너지와 수출계약



이찬휴(왼쪽)·김종호(오른쪽) 가스탱크코리아 공동대표와 마사토시 다케가와 JX에너지 사장(가운데)이 수출계약 조인식을 열었다.

국내 중소기업이 복합소재로 만든 가정용 액화석유가스(LPG) 용기로 일본 시장의 높은 벽을 넘었다.

가스탱크코리아는 일본 JX니폰오일&에너지무역과 연간 16만개, 약 100억원 규모의 가정용 LPG 복합소재 용기 수출계약 조인식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JX홀딩스 자회사인 JX무역이 일본 내 LPG 용기 판매·유통을 맡는다.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소재로 제작한 가스탱크코리아의 LPG 용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강철 용기보다 안전성과 내구성 등이 개선됐다. 불에 휩싸여도 가스가 한꺼번에 누출되지 않아 폭발하지 않는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부식에 대한 내구성도 강해 해안 지역에서도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 무게는 기존 용기보다 40%가량 가벼워졌다. 용기의 반투명 창을 통해 눈으로 가스 잔량을 확인할 수 있다.

가스탱크코리아는 2009년 스웨덴 HFC의 복합소재 용기 생산 기술을 도입해 충북 충주 첨단산

업단지에 연 17만개 규모의 생산 공장을 세웠다. 꾸준한 연구개발로 기술을 축적한 뒤 안전한 LPG 용기 수요가 커지고 있는 일본 시장 진출에 나섰다. JX니폰오일&에너지와 제휴를 맺고 3년간 '실증 시험(필드테스트)'을 했으며, 일본 자동차전선사와 가스회사의 용도에 맞는 용기도 개발했다. 최근엔 일본고압가스협회와 일본경제산업성의 최종 인가를 받았다.

가스탱크코리아 관계자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강철 소재 LPG 용기는 1600만개에 이른다"며 "안전성과 내수성이 뛰어난 FRP 소재 LPG 용기가 이를 대체할 것으로 보여 일본 매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美서 히트친 유기농 화장품 한국 공략"

수잔 박 프로와이드 대표 "마케팅으로 인지도 높일 것"

"제가 쓰고 싶은 민감성 화장품을 소박하게 제조하기 시작했는데 어 느덧 제품이 80개를 넘었습니다. 먹어도 되는 흑설탕 스크럽제를 비롯해 엄마와 아기가 함께 쓰는 비누 등 모두 천연 화장품입니다."

수잔 박 프로와이드 대표는 "아토피 질환처럼 민감하고 트러블이 잘 나는 피부를 위한 틈새시장용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로와이드는 비누와 샴푸, 보디로션, 해면 등이 있는 '뷰티풀스킨'과 각질제거 크림, 미백 애플 같은 기능성 화장품 위주의 'R.N.D.랩(알앤디랩)'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모두 프리미엄 제품이다.

박 대표는 재미동포로 35년 전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이민간 뒤 물류 및 컨테이너 사업을 했다. 그러던 중 1997년 유기농 제품 코너에서 우연히 뷰티풀스킨의 천연비누를 접했다.

그는 "미국 화장품이 피부에 안 맞아 고생하던 때였다"며 "기존 유기농비누 가격의 1.5배가 넘는 프리미엄 제품이었지만 천연성분을 많이 사용해 순하면서도 기능



수잔 박 프로와이드 대표는 "한국에서도 고기능 천연 화장품을 꾸준히 출시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이 뛰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2001년 뷰티풀스킨을 인수해 프로와이드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다. LA의 고급 마사지숍 50곳에 화장품을 공급하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자신감을 얻은 박 대표는 2005년 제품을 한국에 들여왔다. 이듬해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알앤디랩 브랜드 제품도 선보였다. 알앤디랩은 '기술개발하는 화장품 연구소'란 뜻이다. 그는 "피부과에서 하는 박피술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초가루를 섞은 다이아몬드 필링제 등을 내놨다"며 "다른 회사들이 쉽게 만들지 못하는 고가·고기능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력인 미국 시장에 매달리다 보니 한국에서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 박 대표는 "한국에 진출했을 때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에 입점하는 등 초창기엔 반응이 좋았으나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소비자에게 잊혔다"며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제품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서울 강남에 메이크업스쿨 '헤어투도우'를 열기도 했다.

프로와이드 제품은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 재조명받고 있다. 화장품의 유해성분을 분석하는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인 '화해'에서 대부분이 '유해성분 없음'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성남=김정은기자 likesmile@hankyung.com

중소 대부분 "지식재산권 지원책 이용 안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지원 정책을 이용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중소기업 177개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식재산권 지원 정책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38개사(21.5%)에 그쳤다고 7일 발표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정부 예산이 8조원에 달하지만 홍보가 부족한 탓에 중소기업의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지원 정책을 활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어느 기관을 이용할지 몰라서'(32.4%)였다. 이어 '자체 보유 인력'으로 업무

수행이 충분해서'(30.9%), '적합한 지원 정책이 없어서'(21.6%) 등의 순이었다.

지원책을 이용해 본 기업의 정책 만족도는 5.5점(7점 만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지식재산권 관련 '금융·사업화'(5.46점)의 만족도가 가장 컸다.

'창출·권리화'(5.45점), '교육·컨설팅'(5.00점), '보호·분쟁'(4.20점)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평균 39.3개(보유 35.0개, 출원 중 4.3개)로 집계됐다. 국내 지식재산권은 31.6개, 해외는 3.5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민하기자 minari@hankyung.com

시디즈, 그물망 사무용 의자



의자 전문기업 시디즈가 통기성이 좋은 메시(그물망) 소재의 사무용 의자(모델명 T50에어·사진)를 7일 출시했다. 이 제품은 몸의 형태에 따라 유연하게 구조를 맞추고 압력을 고르게 분산해 피로감을 낮출 수 있게 설계됐다. 감도가 센 나일론사와 극세사로 만들어 튼튼하면서도 촉감이 부드럽다. 메시 소재 의자의 단점인 딱딱한 프레임이 허벅지와 닿는 것도 최소화했다. 캐시미어 소재를 넣어 폭신한 느낌을 살렸다.

100년을 생각하는가로등



범죄예방으로
안심거리, 안심마을
부영이 이 지키겠습니다.
보안등

렌즈 90° ~ 360°

스마트 가로등

블랙박스 보안등

재진가로등(주) Tel. 054. 956. 5600
경북 고령군 다산면 다산산간 2길 10-62

Tel. 044. 866. 6377
세종시 한누리대로 2135 스타힐타워 A동 411호